

전남서 음주운전 측정 피하려다 교통사고 잇따라

합평 1명 사망·나주 3명 부상
음주단속 강화에도 편법 기승
경찰 폭행·2차 사고 유발 '위험'
"운전자 법적 처벌 경각심 가져야"



합평군 학교면 죽정리 농공단지 인근 도로에서 A(58)씨가 몰던 SUV가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고 불이 난 현장을 소방당국이 수습하고 있다. 합평소방서 제공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운전자들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핑수를 부려 처벌을 회피하려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2차 사고에 대한 불안이 늘고 있다.

31일 합평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4분께 합평군 학교면 죽정리에서 SUV가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에서 불이 나 전소됐으며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나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문하려고 하자 도

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30일 오후 9시24분께 나주시 성북동 사거리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SUV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B(68)씨는 음주 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다 앞을 가로막은 경찰

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다리를 다쳤고, B씨와 동승자 C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5년 징역형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1~5년 징역형 또는 500~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취 상태일 경우 음주 측정 거부 행량의 하한선은 음주운전보다 더 낮은 것이다.

이런 한계점이 알려지면서 처벌을 피하고자 전국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사고를 내고 현

장을 이탈하거나 음주 흔적을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시는 등의 핑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이 들뜬날 상황에 놓이면 술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기 위해 추가 음주하는 편법 행위도 생겨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적으로 나쁜 선례를 참고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의 약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운전자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 운전자들은 음주 측정 불응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 및 도주 등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10일 민행배 민주당 의원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이 들뜬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행위인 '술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마지막 올림픽인데 아쉽다 영미야 또 멋진 드라마 찍자”

펜싱 여자 에페 단체 메달 무산
프랑스와 8강전서 37-31 패배
서구청 선수들 영상통화 응원

“우리 팀 보물 영미야. 아쉽지만 또 다른 멋진 드라마 찍어보자.”

2024파리 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단체 8강전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가 열린 30일 오후 광주 풍암동 서구청 펜싱팀 숙소에서 응원전을 펼친 박광현 감독과 선수들은 동료 선수인 강영미(39)의 여자 에페 단체전 4강행 좌절을 아쉬워했다.

단체전 세계랭킹 2위이자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던 여자 에페 대표팀의 금메달을 기대했으나 홈팀 프랑스에 31-37로 덜미를 잡혀 메달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이 올림픽 마지막 출전인 강영미가 메달을 목에 걸고 금의환향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에 아쉬움도 컸다.

박 감독과 선수들은 이날 같은 시간 한국의 탁구 동메달 결정전이 진행되면서 펜싱 TV중계가 이뤄지지 않자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점수판을 보며 응원전을 펼치다 남자 에페 개인전 대표로 출전했던 동료 선수 김재원과 영상 통화를 통해 경기를 관전할 수 있었다.

선수들은 강영미의 주특기인 '막고 찌르기'가 적중할 때마다 환호를 내지르며 역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끝까지 열띤 응원을 펼쳤다.

결국 한국의 패배로 끝났지만 박 감독과 선수들은 강영미의 후련에 엄지를 치켜세우며 자랑스러워 했다.

박광현 감독은 “영미가 2007년 우리팀



2024 파리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 8강전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서구청 펜싱 선수단이 풍암동 숙소에서 현지에는 동료 선수의 휴대전화 영상 통화를 통해 강영미 선수의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있다.

에 왔을 때 전국체전 금메달을 안겨줬다. 워낙 힘도 좋고 승부욕이 있어서 '우리 팀 보물'이라고 치켜세웠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며 “이번이 영미의 마지막 올림픽인데 너무 아쉽다. 그동안 고생했고 이전 10월 전국체전 등에서 또 다른 멋진 드라마를 찍어보자”고 격려했다.

강영미와 동갑내기인 최은숙 선수는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내 친구 영미가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그동안 대표팀에서 훈련하느라 고생 많았고 돌아오면 팀원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위로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영미 후배 이점함(33) 선수도 “선수촌에서 함께 대표팀 생활할 때 영미 누나는 존경의 대상이었다. 매우 힘든 훈련 프로그램도 끈기있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영미 누나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본받아 발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글·사진·최동환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록!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록! 바로 바로 확인까지 록!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일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무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